

건축계의 염원이 풀리는 한해를 기대하며

Wish to have a year that aspiration of architectural field has come true

바야흐로 대한민국에 2012년 벽두부터 정치의 계절이 왔다. 4월에 총선과 12월에 대선. 이렇게 한해에 동시에 두 개의 선거가 겹치는 것은 마치 개기일식이 오랜만에 오는 것처럼 드문 일이다. 가뜰이나 정치에 대한 욕구가 높은 한국에서 이런 사건은 정치판에 뛰어난 참여자나 투표만 할 수 있는 관전자인 국민에게 흥미만점이다.

왜 서두를 정치이야기로 꺼내는 고 하니, 정치인은 솔직하다. 권력을 잡고 싶은 것이다.

신문에서 보면 모든 사건들이 정치적인 계산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기를 쓰고 권력의 중심근처에서 빙방 돈다.

한 예를 들어보자. 대통령까지 관심을 갖고 추진했던 감기약, 드링크 류의 슈퍼마켓 판매는 시행령으로는 가능해도 실제로는 시행되지 못했다. 이유는 전국에서 약국을 개업하고 있는 많은 약사들의 저항이 두려워서이다.

그런데 전국에 있는 8천개의 건축사사무소와 그 수하에 같이 있는 건축사보까지 합하면 무시하지 못할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건축사가 그 힘과 영향력을 보여준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다. 대통령도 진저리를 낼만한 사설방송 '나는 꿈수다'를 통해 많은 정치인들이 덕을 보거나 피해를 보았다. 덕을 본 사람은 권력을 잡았고 피해를 본 사람은 그 반대의 약자 입장에 서게 되었다.

건축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여럿 있을 터인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할까? 여기에서 건축인들 사이에도 답이 갈린다. 우선 최근에 개설되어 활발한 논의가 개진되고 있는 페이스 북의 첫 주제도 아쉽게도 건축가, 건축사 호칭문제, 다음으로 건축사면허시험의 난이성 그리고 저작권 등을 가지고 논전이 계속되고 있다. 건축인들의 문제의 우선순위가 일치해야 집중력을 발휘하고 힘을 얻을 텐데 여기에서 핀트가 어긋나 있어 아쉽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최우선순위가 건축계의 양극화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마치 다이어마이트의 전선처럼 발주제도까지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용기 없고 소심한 건축사는 이 문제를 공공연하게 꺼내지도 못한다. 왜? 현업에서 막강한 위세를 떨치고 있는 대형사무소의 기세에 눌려서이다. 그리고 그들의 심사가 뒤뜰릴까 두려워서이다. 덩치가 커도 한참 큰 일들을 힘차게 나꿔채는 그들의 실력 앞에 그저 기가 죽어 있을 뿐이다. 아! 이제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는 일들은 작은

사무소들은 현 상황에서 감히 참가할 엄두도 못내는 이상한 계절이 온지도 한참이나 되었다.

왜 내가 낸 세금의 일부까지 포함된 공공재의 설계경기에 유독 대 조직만이 들어와 일을 물어가는 이 상황의 구조화는 언제부터일까?

한동안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회에서 발주제도문제에 대해 여러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하면 개선할까 고민한바 있다. 그때 느낀 것은 마치 철갑옷처럼 무겁고 복잡한, 이러한 불편한 법이라는 미명하의 옷을 감히 떨쳐낼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한편으로 왜 우리가 이런 것까지 고민해야 되나 이었다. 이렇게 불편하고 잘못된 법을 만든 정부가 다시 깔끔하고 산뜻한 법의 옷을 만들어 입혀주어야지 하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든다. 이렇게 전국의 대부분의 건축사에게 불편한 법이 소수의 누구에겐가는 아주 달콤하고 훌륭한 옷일 거라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낡고 추악한 옷을 만든 사람이 벗겨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로 그런 면에서 헌법재판소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용기 있는 건축사 100명이 탄원해서 이 낡고 추악한 발주제도의 법을 재건축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지금 사회적으로는 동반성장위원회, 그리고 갑자기 흑기사처럼 나타나 대한민국 사회를 구원할 듯한 안철수 교수의 출현, 그리고 그들도 용기 있게 양극화의 부조리에 대해 외치고 있지 않은가? 대한민국의 양극화 1:99의 사회현상을 바로잡지 않고는 건강한 대한민국은 요원하다고?

모재벌이 '한명의 유능한 사람이 일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 말했다. 그런데 모 경제학자가 거꾸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한명의 유능한 사람이 일만 명을 굶게 한다'고, 말은 뒤집으면 또 다른 면이 부각되게 마련이다.

지금 2012년 양대 선거가 있는 대한민국은 정치권력의 지형도가 바야흐로 바뀔 수도 있는 역사의 전환기에 있다. 건축계에도 이 전환기에 불건전한 하나의 시스템이 바로 잡힐 수도 있는 기회를 잃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보자.

오늘 아침 차기대통령으로 가장 우선순위에 접근해 있는 박근혜 의원의 말 "시장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자본주의에서 탐욕을 방치하면 피해를 입는 약자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양극화를 정부가 방치해서는 안 되며 개입해 바로잡아야한다" 는 말에 희망을 품어도 되나? ■



최동규 | Choi, Dong-kyu, KIRA (주)서인 종합건축사사무소

약력
 • 한양대학교 건축과 및 동대학 산업대학원 졸업